

벼랑끝 몰린 지역관광업계 살리기 안간힘

코로나19 직격탄 생존 위기 광주 북구 '무등유람' 팸투어 전국 25개 업체 관계자 초청 인근 지자체·관광업체 참여 각종 주문 쏟아내며 생존 모색

광주시 북구가 지난 28일 마련한 '2020 무등유람' 팸투어 현장에서 만난 지자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얼굴엔 절실함이 엮여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막 끊긴 여행객들 발길을 불러모이지 못하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났고, 관광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통계만 봐도 드러난다. 담양지역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3623명에 그쳐 2017년(6236명), 2018년(4793명) 등으로 감소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내국인 방문객을 포함한 관광객도 139만1825명(2017년)→95만9045명(2018년)→90만1010명(2019년) 등으로 줄었다. 남구지역 영산강문화원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49만1000명이 찾아 전년도(50만2700여명)보다 감소했고 무등산국립공원 지산유원지의 경우 지난해 8172명만 찾아 2017년(2만3699명)→2018년(9629명) 등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의 경우 감소세가 훨씬 심각하다. 지역축제는 줄지어 취소됐고 광주비엔날레조차 내년 2월로 연기되면서 광주·전남 관광업계는 아우성이다. 지자체, 관광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벼랑 끝으로 몰린 광주·전남 관광위기를 해결 하자는 절박감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이유이다.

광주시 북구가 주최한 행사에는 동구·남구·담양군도 참여해 홍보에 매달렸고 광주관광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25개 전국 관광업체 등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어울리는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KOSTA) 소속 25개 관광업체 관계자 30여명은 지난 28일 광주시 송정역에 도착한 뒤 말바우시장-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처음 광주를 방문한다는 업체 관계자들은 몇 차례 방문 경험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 통해 광주 관광 특징 등을 전해들으며 쓸만한 관광 콘텐츠를 엮어내라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때문인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진행된 관광설명회는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 "불 것 없는 데, 관광지 시설 바꾼다고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등 관광업 종사자들은 기존 관광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19 이후 가족단위 여행이 많아질텐데,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 "시니어 치유 여행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유철상 상상투컴퍼니 대표)며 관련 콘텐츠를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소규모, 힐링, 청정, 스마트, 언택트(비접촉) 등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를 관광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모든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삼나무숲 힐링캠핑, 해독 캠프, 숲체험 치료 등 광주와 담양 등을 잇는 치유 인프라를 활용해달라는 주문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북구 내 호수생태원이 광주시에서 유명 관광지인데 주변 충효동, 환벽당 등과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 "광주와 전남에 좋은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 이를 잘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자치구와 관광업체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광주 북구 관광설명회에서 관광업체대표 및 유관기관장들이 주요사업 소개를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접수

1인당 150만원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무급휴직·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1~12월은 출생 연도 끝자리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여성 군의원에 막말 전남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여성 정치인에게 막말을 퍼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3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28일 회의를 열고 김용호 의원(강진2)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서 같은 당 여성 A군의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물의를 빚었다. 지난 4월 8일 오전 강진 마량면 장터 인근 민주당 유세장에서 A의원이 "유세 발언 순서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의원의 얼굴을 마스기로 치는 하역(내가)는 그 예비보다 나이를 더 먹었다"는 식의 막말을 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 동구, '예비마을기업' 2곳 지정 약정

광주시 동구 지산2동 '다복마을'과 지원 1동 '소담이네'가 예비마을기업에 지정돼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난 31일 동구에 따르면 '다복마을'과 '소담이네'는 최근 2020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약정을 체결했다. 마을기업 예비단계인 '예비마을기업'은 광주시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구와 약정 체결 후 2년간 예비마을기업 자격이 주어진다.

2년 동안 지속적인 마을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실적을 인정받으면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두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제공받아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제품개발·교육·컨설팅 등에 사용,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으로 마을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생회 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육현장 '온라인 선거시대'

코로나 거리두기 접촉 최소화 투표 등 참여율 높아 '효과적'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이 '온라인 선거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살레시오여자중학교는 최근 학생회 임원선거를 온라인으로 치렀다. 후보 공고를 시작으로 후보자 포스터, 실시간 쌍방향 토론, 3단계 인증을 거친 투표까지 선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살레시오여중은 후보자와 유권자간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 후보자 공약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포스터'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좋아요'와 댓글달기를 통해 유권자의 역할과 의무를 배우게 됐다.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에서도 코로나19로 자칫 학생자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 온라인 학생회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 생활교육과장은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자치로부터 시작한다"며 "온라인 학생회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단위학교에서 학생중심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의 꽃'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도 개학 연기 등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교육 전반의 변화에 예외일 수 없었다. 자율형공립고인 광주 상일여고와 예술

특목고인 광주예고는 지난 4월 PC나 스마트폰에서 임의생성된 개별URL을 클릭해 보안문자나 휴대전화 본인인증 입력만으로 즉시 투표가 가능한 K-보팅을 이용해 학운위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2020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 사전투표 메뉴얼'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도 했다. 동아리 부원 모집도 온라인으로 이뤄져 광양 백운고는 정규 동아리 부원 선정 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온라인·등교수업 병행 지침 달라 학교 혼선"

전교조 광주지부 반발

교육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온라인과 등교수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청의 지침과 현실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직원노조 광주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학교가 '생활방역의 실패'이 돼선 안된다"며 "시교육청은 온라인·등교수업 병행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현장 판단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시교육청이 지난 22일 안

내문을 통해 '등교·원격수업 병행은 학교 구성원간 합의,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일선 현장에선 지침 따로, 실제 따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들어 격일·격주 등교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건 어렵다"며 못하게 한 학교가 있는 반면 등교수업에 뜻을 모은 학교에 대해서 "격주등교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사례를 예로 들며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학교현장은 갈팡질팡"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자료: 보건복지부

수목장 44.2%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수목장 14%

남골당 74%

기타 12%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